

KOBA 2016
REVIEW

기술시연회 및 세미나 2016

고일

ARRI Camera & Lens Seminar

Sennheiser, HME, Sound Devices, Rycote, K-Tek, VT 등 다양한 방송장비를 취급하고 있는 고일은 이번 코바에 참가하여 프로음향 장비에서부터 영화 촬영장비, RF 시스템, 프로조명까지 각 브랜드의 최신 제품들을 선보였다. 코바 둘째 날에는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403호에서 'ARRI Camera & Lens Seminar'를 개최하여 카메라 및 렌즈에 관심이 많은 엔지니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고일 조준영 대표를 비롯하여 Paul Ivan ARRI 아시아 지사장과 TJ Kim Product Manager가 참석하였고 그리고 홍콩 아시아 브랜치는 물론 독일 뮌헨 본사에서 지난 NAB 2016과 마찬가지로 Thorsten Meywald Optical System Product Manager를 파견하는 등 KOBA를 개최한 한국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었다.



김태정 매니저(좌)와 고일 조준영 대표(우)



세미나를 진행하는 Meywald(우)와 TJ(좌)

조준영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된 세미나의 렌즈 파트는 기존 Anamorphic 렌즈 제품군과 새롭게 출시된 MA28/T1.9, MA180/T2.8은 Meywald Manager가 발표하였고, ARRI의 기타 제품군과 새롭게 출시된 ALEXA SXT 카메라에 대한 소개는 김태정 매니저가 각각 맡아 3시간의 커리큘럼이 진행되었다. ARRI와 Carl Zeiss의 공동 개발을 통해 탄생한 Master Anamorphic 렌즈는 생생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색감을 담아내는 렌즈 시리즈로 가까운 초점거리에서 촬영한 직선이 그대로 직선을 유지할 정도로 낮은 왜곡이 강점이라며 Meywald는 실제 현장에서의 촬영동영상을 재생해가며 입증해 보였다. 기존 35~135mm 7개의 Anamorphic 시리즈에 28mm와 180mm가 신규 추가되어 낮은 왜곡은 물론 얇은 피사계심도를 통한 부드러운 Anamorphic 보케(bokeh)가 강화되었다.

세미나에 소개되었던 ARRI STX Camera & Anamorphic Lens

기존의 ALEXA XT 모델을 대체할 SXT(Super Xtended Technology) 시리즈는 EV(Entry Version), Plus, Studio 세 종류로 출시되었다. ALEXA 65의 전자장치 및 영상 처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안정성을 추구하였고 기존의 기능에 더해 HDR 모니터링, 두 개의 Anamorphic ProRes 녹화 포맷(2K 및 4K, 모두 내장형의 Desqueeze를 통한 Anamorphic 촬영), 120fps를 구현하는 ARRIRAW 3.2K 녹화포맷, Open Gate ProRes 3.4K 녹화 포맷 등이 가능하여 오직 필드를 위한 제품이라고 김태정 매니저는 설명하였다. 2015년 1월 이후로 출시된 ALEXA XT, Plus, Studio 카메라는 완전한 SXT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 출시된 카메라는 SXR



세미나에 소개되었던 ARRI STX Camera & Anamorphic Lens

모듈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나 향후 업그레이드될 기능은 포함되지 않으니 ARRI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엔지니어라면 참고할 만하다.

사운더스



‘일본 최신 스테이지 조명 디자인 테크닉’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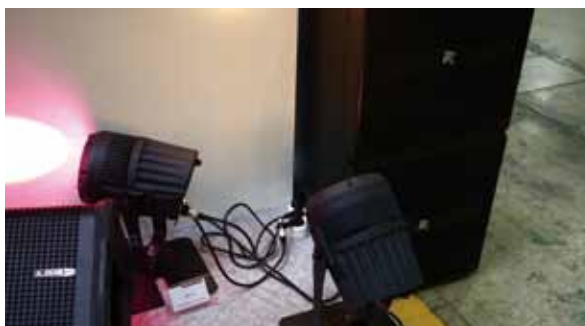
사운더스는 이번 코엑스에서 열린 KOBA 2016에서 5월 24 일(화)부터 26일(목)까지 3일간 컨퍼런스룸 324호(AB)에서 '일본 최신 스테이지 조명 디자인 테크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Nishikawa Yahiro, 일본 Live Gear 대표가 직접 일본 최신 스테이지 조명 디자인 테크닉을 소개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Live Gear는 일본 내에 유명 가수 콘서트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의 콘서트 스타디움의 조명을 담당할 정도로 일

본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업체이며, Nishikawa 대표는 직접 조명을 설계하는 디자이너이면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Nishikawa 대표가 생각하는 좋은 조명은 '타이밍이 좋은 조명, 화려한 조명보다 최상의 밸런스를 가진 조명'이다. 그는 PAR light를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조명을 자체 개발하였고, 그 대표적인 제품이 Liz-C(Color)와 Liz-W(White)이다.

이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Liz-C는 4개의 컬러 변경이 가능하며 Liz-W는 자체적 색온도 변환을 할 수 있는 화이트컬러 기반의 조명이다. 그리고 14개의 LED가 내장되어 있고 앞뒤 무게중심이 안정적이며 작고 심플한 디자인, 간단한 DMX 채널, 고어텍스가 내장된 IP65 등급 방수기능, 4도에서 50도까지 가능한 줌 기능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팬이 없어 노이즈나 진동, 발열 현상이 매우 적다. 이 조명은 방수기능이 뛰어나 도심 공원의 라이트업 및 눈, 빙속 야외공연에도 탁월하며 조용한 클래식 공연장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Live Gear의 Liz-C, Liz-W 제품은 코엑스 1층 행사장 내 사운더스 부스에 전시되었다. 



Liz-C, Liz-W



Liz-W 뒷면